

‘코로나 집중’ 여파 청소년 22만명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 여성가족부,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초4 43만명·중1 43만명·고1 39만명 과의존

남자는 저연령·여자는 고연령 ‘과의존군’ 많아

국내 청소년 22만명 이상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부터 시행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게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올해는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1만 1689개 학교에서 127만298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4학년 43만8813명, 중

학교 1학년 43만9792명, 고등학교 1학년 39만 4376명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2만8891명으로 2020년 22만8120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었던 2019년 20만6102명과 비교하면 2만2000여 명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 과의존 위험군인 중복 위험군은 8만3880명으로, 2020년 8만 3914명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 7만 1912명과 비교하면 1만여명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18만3228명,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2만9543명이다. 스마

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2020년 13만6538 명보다 감소했지만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 전년도 17만5496명보다 증가했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PC 이용률이 증가하고, 스마트폰에 한정되지 않고 인터넷·PC를 통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202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6만7280명, 중학교 1학년 8만5731명, 고등학교 1학년 7만5880명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각각 전년 대비 1506명, 1269명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 1학년은 2004명 감소했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초등생부터 (과의존 위험군) 늘어나서 중학교 때쯤 돼서 아이들의 미디어 이용이 정점을 찍고, 고등학교급 되면 입시라든지 하는 그

런 과정 속에서 이용이 좀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다”라며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라 최근 한 4-5년 동안의 하나의 추세”라고 설명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초등학교 4만173명, 중학생 4만3058명, 고등학생 3만4309명이 과의존 고위험군이었다.

여자는 초등학교 2만7107명, 중학생 4만 2673명, 고등학생 4만1571명이다.

최 정책관은 “여학생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한 사회적 상호작용, 즉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진단조사 결과에 나타난 청소년의 개인별 과의존 정도에 맞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 병원 치료, 기숙 치유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동취재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시민들 “다행” vs “답답”

정부, 오늘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시행

정부가 23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재연장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성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 시행한다.

2단계 지역 소재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시민은 온라인에서 “더 심해질까봐 노심초사 했었는데 다행”이라며 “이대로 확진자가 좀더 줄어들고 백신 맞는 사람이 늘어나면 거리두기도 조만간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도 하니 그나마 확진자가 이 정도”라며 “이것마저 안 했으면 더 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불만인 시민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불필요한 술자리나 회식 모임들은 코로나19 종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반성하고 방역수칙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이번 연장 조치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계 주된 비판점이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코로나19가 밤 10시 이후에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만 보고 결정을 하니 답답하다”며 “맛집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다다다 붙어 식사하고 있는데 야구장만 금지된 이유도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시민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무슨 소용인가 싶다”며 “계속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할 거면 차라리 대중교통도 전면금지 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B씨는 “아는 사람끼리 집합금지를 하면 뭐하나, 식당이고 마트고 백화점이고 재래시장이고 수백백씩 모여있다”며 “코로나19가 아는 사람끼리만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 의아하다”고 언급했다.

기동취재본부

오늘부터 배달앱 4번 음식 주문하면 1만원 할인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2월 말 완료된 외식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은 이번 행사에도 인정된다. 새롭게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응모한 카드사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로 할인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정부는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행사에 총사업비의 40%에 달하는 260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나머지는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적 확인은 배달앱을 통해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함평엑스포공원, 빛에 물들다

포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설치된 경관조명은 총 26종 4424점, 야간경관조형물은 31종이다. 조명과 조형물은 중앙광장 바닥조명, 곰나루·희망나루 LED 미디어, 빛 벤치, 터널조명, 건축물 벽면을 활용한 고보조명 등으로 다양한 경관을 공원 전역에서 즐길 수 있다. 군은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야간개장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1월 28일 문을 연 함평자동차극장 등과 함께 함평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학대전이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이 어둠속에서 아름다운 빛을 뽐내고 있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야간 볼거리 조성 및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함평엑스포공원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설치된 경관조명은 총 26종 4424점, 야간경관조형물은 31종이다. 조명과 조형물은 중앙광장 바닥조명, 곰나루·희망나루 LED 미디어, 빛 벤치, 터널조명, 건축물 벽면을 활용한 고보조명 등으로 다양한 경관을 공원 전역에서 즐길 수 있다. 군은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야간개장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1월 28일 문을 연 함평자동차극장 등과 함께 함평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